꽃게가 사라졌나…진도 어민 시름

전국 최대 꽃게 위판장 서망항 어획고 2년만에 반토막

수온변화로 방어·벵에돔·돌돔 등 난류성 어종 자주 등장

진도산 꽃게. 최적의 조건에서 자란 꽃게는 다른 지역 꽃게보다 상품성이 좋아 가격도 더 높다.

"그 많던 꽃게는 어디갔나?"

전국 최대 꽃게 위판장인 진도 서망항이 2년째 어획량 감소로 시름에 잠겨있다. 수온 변화 등으로 꽃게 어획량이 크게 줄고, 어종 변화도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도군에 따르면 20~3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조도와 추자도 사이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지만 1척당 조업 1차례 어획고는 300~400㎏에 그치고 있다.

진도는 전국 생산량의 25% 정도가 잡히는 꽃게 주산지다. 특히 꽃게 주산지인 조도 해역은 냉수대로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고 갯바위 모래층으로 형성돼 최적의 꽃게 서식지로 다른 지역 꽃게보다 상품성이 좋아 가격도 더 높다.

예년 같으면 조업 1차례에 1척당 많게는 1t 이상을 잡았지만 2년 전부터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1척당 연간 어획고도 2017년 863t서 2018년 527t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500t 정도에 머물러 있다.

꽃게 값은 ㎏당 3만원 선에 거래되는데 어획량 감소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만원 정도 올랐지만, 어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꽃게잡이 한 어민은 "수온도 높고 기상 여건도 좋지 않아 최고 900t에 이르던 연간 어획고가 2년 연속 크게 줄어 출어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꽃게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위판장에는 난류성 어종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진도수협 관계자는 "최근 위판장에 방어와 벵에돔, 돌돔 등 전에 없던 난류성 어종들이 나온다"며 "꽃게 어획 부진에 어민 시름이 깊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해남군-서울 구로구 공동발전 '맞손'

도농 협력사업 발굴·인적 물적 교류 등 활성화 방안 논의

땅끝마을 해남군과 디지털 산업 메카 서울시 구로구가 공동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해남군과 구로구는 지난 23일 구로구청 창의홀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발전과 우호 증진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이성 구로구청장, 이순이 해남군의회 의장, 박칠성 구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는 도농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매결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해남군과 구로구는 도시와 농촌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협력사업 발굴과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동발전 업무를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농수산물 대표 주산지인 해남과 첨단 디지털 산업단지가 밀집한 구로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행복 강화 방안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매결연 협약식 이후에는 구로구청 광장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손현주, 정태우, 양동근, 유선씨 등 영화배우, 지역 여성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영화인 사랑의 김치나누미 행사'가 열렸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관광객들로 붐비는 완도전통시장 퓨전분식코너 전경.

'완도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상설시장 탈바꿈

주차시설 완비 등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주변 관광지 연계도

완도군의 대표 시장인 완도5일시장이 완도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활성화에 나선다.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완도5일시장이 단순히 5일마다 열리는 시장정도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완도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문화관광형 상설 시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981년에 개설된 완도 5일시장은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이었지만 2019년 4월 새롭게 재개장한 후 매일 시장이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도 5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군은 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완도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완도전통시장은 이름에 걸맞게 완도의 전통과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이벤트는 물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완도군은 예산 30억원을 들여 완도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하고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2층 3단, 총 108면의 주차시설을 지난 9월에 완공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한-인니 농수산분야 토론회

신우철 완도군수 패널 참석

완도군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농업, 수산, 환경 분야의 청년창업 협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신우철 완도군수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당시 발표한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신남방정책 활성화와 양국 청년 창업 협력 방안 마련,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한경대학교, 비영리단체 A-10 (Agriculture 10 Years from Now)이 공동 주최했으며, 임태희 한경대 총장, 박민용 A-10 회장과 인도네시아 하원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패널 토의에서 "완도군은 한국 수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앞으로 양식 기술 등을 인도네시아 청년 스타트업에 제공하고 화장품과 바이오산업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해조류의 대량 양식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본격 김장철이 시작된 가운데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 냔냔이농원에서 배추 수확이 한창이다.

김장철 해남 절임배추 인기 상종가

온라인 쇼핑몰 주문량 폭주 전년비 2만 박스 늘어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 가운데 배추 주산지인 해남의 절임배추가 인기 상종가를 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의 경우 11월 초부터 절임배추 판매를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주문량이 6만9200여 박스(20㎏ 기준)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8500여 박스에 비해 2만 박스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속이 꽉찬 해남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적기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로 해남배추의 인기는 초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남미소 입점 절임배추 농가들도 해남배추 100% 의무사용 실천을 결의하고, 지난해보다 10% 정도 상승한 선에서 절임배추 가격을 동결했다.

해남배추는 중부지방의 재배기간이 짧은 배추에 비해 70~90일을 충분히 키워내면서 쉽게 물러지지 않고, 황토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풍부한 영양으로 타지역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인 해남은 올해 1941ha 면적에서 가을배추를 생산, 30% 가량을 절임배추로 가공,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잇단 태풍으로 가을 배추 생산량이 다소 감소한 만큼 겨울배추(2372ha)를 조기 출하할 예정으로 김장 물량을 충당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고품질 해남배추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절임배추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남배추의 높은 인기에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생산기준 준수 등을 꼼꼼히 살펴 절임배추를 구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군, 모범 음식업소 24곳 지정

군청 홈페이지 맛집 소개·위생물품 등 지원 혜택

진도군이 군민의 먹거리 안전과 맛 모두를 책임질 지역 모범 음식업소를 지정했다.

진도군은 공모와 신청을 통해 음식문화개선 실천여부, 위생, 서비스, 맛, 친환경 음식문화 정부정책실천 및 홍보협조 여부 등을 평가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 음식업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신규업소 6개소, 재지정 업소 18개소 등 총 24개소이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증을 배부하고 표지판을 부착하며, 군에서 제작하는 맛집 책자 등에 수록된다.

또 군 홈페이지 게시 등 대·내외 홍보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위생물품 지원을 받게 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